

목사의 역량

부제: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라

하이라이트

-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당신의 목사를 포함하여 '무제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p98)
-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모든 일이 사역이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1차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p102)
- 결국 장로들의 말은 자기들도 가정생활에서 낭패를 보고 있으니 모두가 낭패를 보면 자기 기분이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얘기로 혼자서 나쁜 인간되기가 억울하니 다 같이 나쁜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p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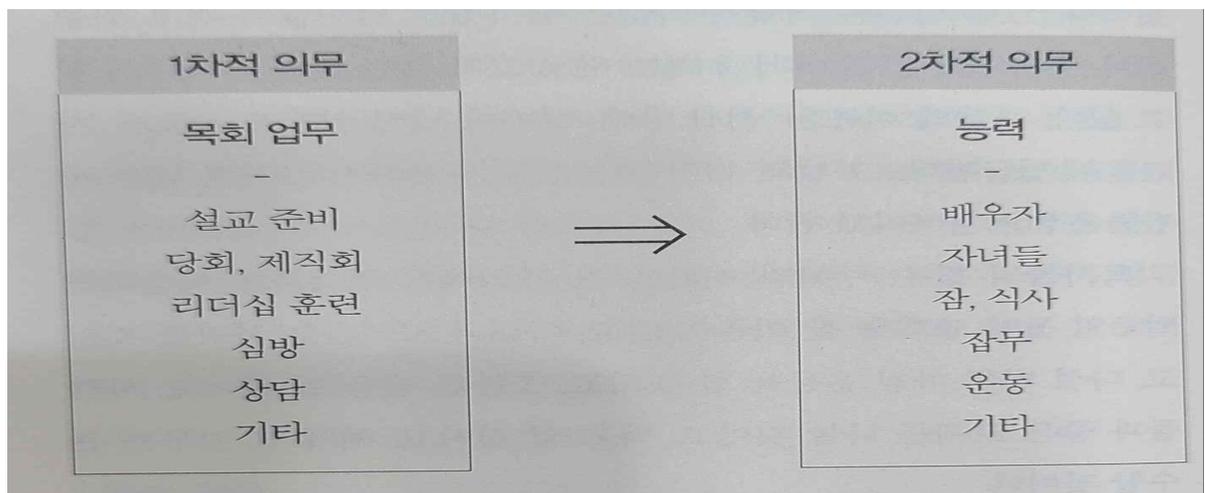
목차

- Ⅰ 목회 역량
- Ⅰ 가정생활은 목사의 1차적 의무다.
- Ⅰ 목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라
- Ⅰ 역량의 양면성
- Ⅰ 역량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들
- Ⅰ 역량과 성령
- Ⅰ 중간에 끼어드는 방해거리들
- Ⅰ 목사의 역량을 확장시키라
- Ⅰ 목회는 고차원적 사명이다
- Ⅰ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1. 폴 목사는 복잡한 심경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어느 모로 보나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 뻔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목사 부부의 고향인 텍사스에서 목회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고민을 계속하였다.
2. 최종 결정을 앞두고 그 교회 담임목사의 직무요강을 다시 검토해 보았다. 각각의 조항 옆에 적어놓은 소요시간을 계산하니 총 82시간이 나왔다. 폴은 베테랑 목사로 여러 정황상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도 결국 폴 목사는 그 교회에 부임하겠다고 승낙 전화를 했다.

【목회 역량】

1. 위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세계 지역교회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다. **목사에게 부여된 임무는 터무니없이 과중하고 비현실적으로 그 결과 목사들은 빛의 속도로 지쳐 쓰러진다.**
2.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즉 **이 세상 어느 사람도, 당신의 목사를 포함하여 ‘무제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일주일에 168시간이 주어지고 우리 모두는 제한된 능력과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 교회가 요구하는 일들을 해낼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무작정 목회를 시작하면 목사의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다.



3. 위의 표처럼 목사의 1차적 의무가 목회 업무라고 한다면 2차적 의무는 그

보다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목사보고 일주일에 60시간 이상을 일하라는 건 결국 가정생활, 사생활을 희생하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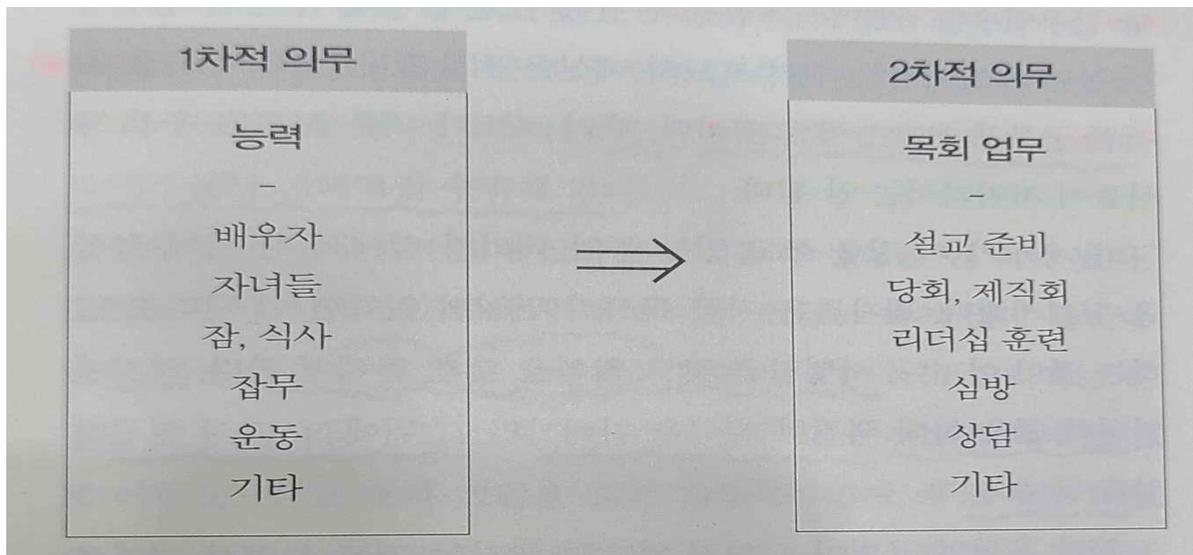
4. 앞서 언급한 풀 목사의 경우, 아무리 시간을 절약한다고 해도 일주일에 최소 70시간은 일을 해야 한다. 거기에 52시간은 자야 하고, 운동, 목욕, 식사에 5시간이 소요되고, 가족, 휴식,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거의 사용할 시간이 없다.
5. 결국 언젠가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것이기에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목회 구조였다. 풀 목사의 허술한 목회 때문에 교회가 실망하거나 노상 교회 일에 매달리는 남편과 아버지로 인해 가족이 실망할 것이다. 풀 목사의 목회는 시작부터 무리한 업무량으로 인해 목사의 역할이든 남편과 아버지로의 역할이든 둘 중 하나는 실패가 예정된 것이다.

【가정생활은 목사의 1차적 의무다.】

1. 목사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는 “가정생활과 교회 일의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이다. 그러면 저자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매우 비성경적**이라는 걸 알려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인생의 모든 일이 사역이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의 1차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 원리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면 목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는다.
2. 저자는 어느 교회에 가서 장로들을 만나면 “목사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목회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70시간씩 일하면 결국은 목사 가정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당부하면 장로들은 “나도 일주일에 80시간 이상씩 일을 합니다. 매주 사흘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다른 장로들도 전부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못 하는 걸 목사에게 하라고 권하라는 말입니까?”라고 응수한다.
3. 결국 **장로들의 말은 자기들도 가정생활에서 낭패를 보고 있으니 모두가 낭**

패를 보면 자기 기분이 조금은 나을 것 같다는 얘기로 혼자서 나쁜 인간되기가 역을하니 다 같이 나쁜 인간이 되자는 것이다.

4. 강조하지만, 업무를 정할 때는 항상 능력의 한계치에서 시작해야 한다. **목사의 1차적 사역인 가정생활에 얼마의 시간을 투자**하고, 먹고, 자고, 운동하고, 쉬는데, 얼마의 시간을 소비해야 적당한지 생각해야 한다. 얼핏 보서는 앞뒤가 바뀐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누누이 말하지만, 목사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자신을 혹사하며 일하는 게 문제다.



5. 교회가 목사의 능력의 한계치를 이해하고 목회의 선을 정확히 그어주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을 다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이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길이다! 사임으로 치닫는 비현실적인 직무요강 대신에 현실적인 직무요강을 작성해서 목사의 탈진을 막아야 한다.
6. 패스터서브 사역자들이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목사를 상담한 결과 **목사에게 가장 적절한 업무 시간은 일주일에 48~52시간**까지라는 점이다. 목사가 아닌 누구라도 일하는 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일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당시 업계의 관행을 깨고 하루 근무 시간을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주당 근무 일수를 6일에서 5일로 변경했고 생산량은 오히려 늘어나 주당 40시간 근무제체가 성립되었다. 헨리 포드가 배운 교훈을 목사들이 저버려서는 안 된다.

7. 필자들은 목사가 열심히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되 적절한 휴식을 취해야만 그 뒤에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는 결국 불행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목사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라】

1. 당신이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즉시 수락하지 않더라도 너무 과썸하게 여기지 마라.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다. 만약 수백, 수천의 교인을 가진 대형 교회 목사라면 적어도 3개월은 기다려야 목사를 만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니 속상해하지 마라! 안 만나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협박하지 마라!
2. 만약 만나고 싶다는 당신의 간청을 물리치지 못하고 목사가 즉시 만나겠다고 하면 목사는 그만큼 다른 일을 줄였을 것이다. 즉 당신을 만나는 스케줄 때문에 **뭔가를 희생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런 일이 하루 이틀 반복되다 보면 목사의 삶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3. 저자는 대형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다는 교인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그들은 담임 목사가 중요한 문제에 언급하지 않아서 불만이였다. 그 교회에는 열 명이 넘는 목사들이 있었으나 그 목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오직 담임 목사와 만나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우겨댔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가 끝나면 오직 담임 목사에게만 인사를 하겠다고 대기하는 경우도 많다. 주일 설교를 한 담임 목사만이 자신들에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영발(?)이 세다고 믿는 까닭**이다. 교인들이 갖는 이런 사고방식(슈퍼스타 목회자 신드롬)이 담임 목사를 피곤하게 하고 목회 능력을 고갈시킨다.

【역량의 양면성】

1. 사람의 역량은 1차원적인 게 아니라 2차원적이라는 사실부터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역량은 그 폭(주당 168시간)과 깊이(주당 168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2. 이 세상에 역량의 폭(주당 168시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역량의 깊이(주당 168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역량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들】

1. 자신이 가진 역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이 일을 대신 해줌으로써 자기 시간이 절약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형편이 허락하는 한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역량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2. 당신과 목사가 똑같이 50시간을 일하면서 당신처럼 가족과 충분한 삶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궁금하다면 혹시 목사의 삶이 자기 손으로 집안의 고장 난 것들을 고치고 운동화를 빨고 자동차를 손수 수리하는지 살펴보라. 재정적 여유가 넘치는 사람의 반대편에는 역량을 높일 재정은 부족해도 시간이 넘치는 사람이 있지만 목사들은 이도 저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역량의 깊이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러니 언제나 명심해라. 당신이 금전적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나 목사의 처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대의 편에서 생각하라.

【역량과 성령】

1. 저자는 이 시대의 현자로 알려진 글렌 목사님을 만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교회 일을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는 문제를 털어놓았고 글렌 목사님은 요한복음 5장을 보여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다.

2.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베데스다에서 수많은 병자 가운데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다. 저자는 그 사실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자는 항상 한 명이라도 더 돕고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하겠다고 애를 썼는데 혹시 메시아 콤플렉스는 아니었는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나의 욕심이나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게 아니었는지 생각해 봤다.
3. 당장 시급해 보이는 일들이 날마다 목사를 에워싼다. 그러나 목사는 하루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즉 **교인들의 요구에 맞춰 눈앞의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4.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대로 일하는 분이 아닌 ‘코람 데오’의 삶을 사셨던 분인데 불행히도 목사들의 일과는 ‘코람 데오’가 아닌 역량 초과가 빈번히 일어난다. 자녀의 학예회에 가고 싶어도 교인들 눈치에 못 가고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남성도와 야구경기장에 가고 싶어도 저녁 당회에 참석하는 게 목사들의 현실이다. 설령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고 해도 교회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목사 옷을 벗게 될 수도 있다. 진짜로 성경을 써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교회와 교인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5. 목사의 직무요강을 목사 역량에 맞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들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코람 데오’의 삶을 살게 해주라!

【중간에 끼어드는 방해거리들】

1. 역량의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방해거리들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하루 24시간, 주 168시간이라는 역량의 폭은 바꿀 수 없어도 방법이나 마음이라는 역량의 깊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2. 캘리포니아 대학의 글로리아 마크 박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수하게 일만 하는 시간은 평균 3분 5초밖에 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일을 방해하는데 평균 44% 정도라고 한다. 그건 목사도 다르지 않다. 문제는 방해 받은 후에 이전에 했던 업무로 즉시 돌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3. 저자는 C.S. 루이스(성경신자에겐 교리상으로 맞지 않는 작가 편집자 주)가 쓴 '방해'에 관한 책을 읽고 감명받았다고 한다. 루이스는 중간에 끼어드는 것들을 삶의 방해거리로 보지 말고 그것조차 삶이라고 생각하면 역량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4. 다만 **교인들은 목사의 성경 공부 시간과 설교 준비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고 목사가 방해요소들을 하나님의 작은 섭리로 생각하도록 기도하라.

【목사의 역량을 확장시키라】

1. 당신이 성도로서 역할에 충실하면 목사의 역량을 최대치로 확장해 줄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1~16절에는 교인들도 교회 사역의 짐을 나눠서 지라고 했다.
2. **목사의 1차적인 임무는 성도들을 각 사역에 맞게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바울을 말한다.** 그런데도 현실에서의 교인들은 전도의 사명을 목사에게 떠넘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바로 성도로서의 해야 할 일이다. 교회 문턱만 밟지 말고 헌신된 교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하라.

【목회는 고차원적인 사명이다.】

1.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역자이다. 의료인이건, 판매인이건, 교육자건 상관없이 당신이 일하는 곳이 곧 하나님이 파송한 사역지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

2. 그런 면에서 목회는 독특하고도 차원 높은 사명이라 할 수 있다. 교인의 역량과 목사의 역량은 다르다. 사람들은 목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모른다. 혹 당신이 수완 좋은 사업가이니 목회를 하면 훨씬 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자신하는가? 어디 가서 이렇게 목사직을 알아보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직장을 구하다 정 할 게 없으면 목사라도 하겠다는 소리에는 화가 치민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런 자에겐 스펀전 목사의 명언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고 하고 나머지는 의사나 변호사가 되게 하시오”을 들려주고 싶다. 목사를 사랑하라. 그래서 목사의 역량을 지켜 주라.

【영원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1.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간과 화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목사들은 시간 사용에 있어 크고 작든 스트레스를 느낀다. 왜? 인간은 모두가 영원한 존재라서 그렇다. 우리는 허송세월하지 말고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2. 성경은 **시간의 폭을 ‘크로노스(물리적 시간)’로, 시간의 깊이를 ‘카이로스(의미 있는 시간)’**라는 헬라어로 표기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이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생각해 어떻게 하든 크로노스를 더 가지려 애쓴다.
3.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한정된 시간을 살아야 한다. 주님이 주신 한정된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주님이 주신 카이로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라.